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0. No. 3, 2009

儒家思想에 바탕을 둔 한의학에서의 의료윤리

김근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Medical Ethics based on Confucian Ideas in Eastern Medicine

Geun-Woo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for attain to ideal aspects in medical ethics-clinical medicine, through researching doctor's ethics based on Confucian ideas,

Methods :
Research materials are datum of Confucian ideas included eastern medical books and the Confucian old books. Stand on above-mentioned, I investigate indispensable ethical condition clinical doctor must have in diagnose and treat.

Results and Conclusions :
1. Combination of people-oriented ideas-Confucian and applicative learning-Eastern Medicine, doctor's principle mind is initiated and Confucian physician is the center of that.
2. For practice morality and ethics using the Confucianist's good character, Eastern medical doctor read and acquire the Confucian books.
3. Eastern medical doctor make an effort for application a kind love ideas(perfect religious scholarship ideas of Confucian), serve parents and country as for practice and sublimate into a kind love ideas through practice of integrity and the self-sacrifice.
4. Occasion to examine the female patient, emphasize good manners by Confucian ideas's sexual distinction
5. According to the doctor-doctor ethics, partnership is important due to Confucian faith and good manners

투고일 : 8/5 수정일 : 8/25 채택일 : 9/3
교신저자 : 김근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 031-710-3748, Fax : 031-710-3780, E-mail : kgwoo86@hanmail.net

6. Confucian physician often effected by the people around patient and the protector of patient and criticize positive influence by these kind of peoples(傍人) when diagnose and treat.
7. Owing to Confucian's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男兒選好思想), come out the methods of convert a son into a daughter(轉女爲男法)- manipulation of sex distinction. this method is criticized aspect of medical ethics.

Key Words :
Confucian ideas, Medical ethics, Confucian physician, A kind love ideas

Ⅰ. 서 론

우리나라 의사는 현재 과거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의사들과 관련된 여러 의료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대폭 증대된 의과 대학의 수는 의사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유발하였고, 이는 곧 의료 영역에도 경쟁과 시장의 원리가 도입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의약분업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많은 의사들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1]. 이에 따라 환자의 의사에 대한 순응도도 떨어지고, 환자-의사 관계 또한 과거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윤리는 결국 의사 자신의 素養의 문제이므로, 의료윤리는 외부의 사회적 요구뿐 만 아니라 의학 그 자체의 가치적 내재된 요구로부터 그 주체인 의사는 이를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으로의 의료 환경 변화는 의사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며, 과거 동양사회의 지배적 윤리철학사상인 유교에 바탕을 둔 의사의 윤리의식은 밀접하고 유연한 환자-의사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윤리는 주로 종교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무속 및 민간신앙,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사상적 내용이 민간에 수용되면서 전통윤리의 시대적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이 중에서도 유교는 불교, 도교와 함께 삼국시대 초기에 한반도에 전래되기는 하였지만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핵심적 전통윤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2]. 즉, 한국의 유교문화는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양상과 문화형식 속에 배어들어 왔고, 오늘의 한국인들에게서도 자각적으로나 잠재적으로 광범하게 작용하고 있다[3,4].

그렇다면 '儒敎'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儒'라는 글자의 뜻을 풀이한 예를 몇 가지 보면 柔(부드러움), 需(연약함), 弱(약함)의 뜻을 가진다. 이는 인품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으로 모두 사람을 감화시킴으로써 온화하고 선량하게 만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儒는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닦은 후에 남도 가르쳐서 이 세상 모든 사

람에게 도리를 알게 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仁愛之心'과 '惻隱之心'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2,5].

한편, 과거에도 최근의 시대적 상황과 같이 의사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시기가 있었으며, 동양사회에서는 儒醫가 출현하면서 의사의 윤리적인 면이 더욱더 강하게 대두되었다. 유교는 인간관계의 올바른 행위적 측면을 강조하였기에,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의사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세가 요구되며 유교적 인식이 더욱 강조된 측면이 강하다[6].

윤리적인 측면에서 유교와 의료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유교가 한국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이상으로, 공자로 대표되는 儒家學說의 인생관 가치관 정치관 및 윤리도덕은 모두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醫乃仁術"은 한의학과 동양 전통윤리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명제이며, 의료에 있어 실천적 윤리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데 있어 추구해야 할 내용이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에서의 추구하는 윤리와 유교윤리의 공통분모인 '仁'을 중심으로, 內經 이후 韓醫書 중, 유교적 의료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書誌를 중심으로 한의학 윤리에 담겨진 儒家思想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Ⅱ. 본 론

1. 儒醫의 탄생

儒醫의 정의에 대하여 『醫學入門・歷代醫學家姓氏・儒醫』[7]篇에 "秦漢以後 有通經博史 修身愼行 聞人鉅儒 兼通乎醫"라 하여 '秦漢 이후로 六經을 통하며 史記를 널리 알고,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며 識聞이 많은 사람과, 큰 유학자로서 겸하여 醫術에 통달한 자를 儒醫라고 한다.'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儒醫의 출현을 각각 유교와 한의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학의 중심에서 보면, 宋代의 유학자인 程伊川은 부모를 섬기는 자식 된 도리로 부모의 질병을 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그 醫藥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일부 사대부는 仁의 실천 방안으로 의학을 논의하던 입장에서 발전하여 의학을 실천하게 되었다. 특히, 南宋에 와서는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이 어려워지자 관직을 추구함을 버리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儒醫의 공식적인 언급은 北宋시기에 나왔으며, 南宋에 와서는 儒醫란 의학에 정통한 이들이거나 대대로 유학을 배우고 의학에 종사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한의학 전통의 입장에서 儒家의 신체관이 구체화되어, 의학윤리(醫德)와 의학이론(醫論)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된 金元代에는 '醫儒同道'를 내세우고, '仁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仁이 의학윤리의 중심이 되어 '仁術'을 통한 유교적 실천윤리를 실현 하였다.

결국 儒醫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金元代 이후로,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과 이론을 체계화하여 의학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金元四大家'의 임상적 활약은 儒醫로서의 의학의 임상적 가치를 한 차원 높였다[8,9].

그러므로 의사가 공부하고 익혀야 할 유학적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金元四大家' 및 '李梴'의 내용은 유학이 의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의학교육에 있어 유학이 관여함으로

그 학문적 수준을 높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各書之義 蓋以醫家奧旨 非儒不能明 藥品酒食 非孝不能備也[10]." '醫書의 의로움은 무릇 의가의 깊은 뜻으로 儒家가 아니면 밝힐 수 없고, 약품이나 술, 음식은 효자가 아니면 다 갖출 수 없다.'

"素問 載道之書也. 詞簡而義深 去古漸遠 衍文錯簡 仍或有之 故非吾儒不能讀[11]." '素問은 道를 실은 책이다. 가르침을 실은 것으로 그 뜻이 깊으나 과거로부터 점점 멀어짐에 따라, 문장 가운데 필요 없는 글귀가 들어 있고 잘못된 編制가 거듭하여 나타나니, 우리와 같은 儒家가 아니면 읽을 수가 없다.'

"蓋醫出於儒 非讀書明理 終是庸俗昏昧 不能疏通變化[12]." '대개 의학은 유학에서 나왔다. 책을 읽고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마침내 용렬하고 속되며 혼미해져 변화에 소통 할 수 없다.'

2. 한의학과 유학의 공통점

먼저 두 학문의 출발에 있어 모두 자연과 인간에 대하여 전통적인 신비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고자하는 노력이 공통적 출발점이다. 특히 한의학의 성립은 '信巫不信醫'하던 사회를 '信醫不信巫'하는 사회로 전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즉, 미신적 巫에 대한 비판에서 한의학은 학문적인 의학으로 다시 탄생한 것이다[13].

유교는 天地人과 陰陽五行으로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설명했으며, 자연의 정연한 질서는 인간사회의 당위적인 덕목과 일치한다고 보는 유교사상은 한의학의 철학적 기초와 같다. 즉, 周易의 陰陽思想과 天地人의 세계관은『黃帝內經』의 陰陽論의 근거이다. 또한 天人合一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연속된 세계관도 서로 일치한다.

즉, '劉河間[14]'은 '醫儒'에 대한 醫家 입장에서 "易教體乎五行八卦 儒教存乎三綱五常 醫教要乎五運六氣. 其門三 其道一 故相須以用而無相失 蓋本教一而已矣." '易의 가르침은 五行과 八卦를 체득함에 있고, 儒學의 가르침은 三綱, 五常에 있고, 의학의 가르침은 五運六氣에 있으니 그 문호는 셋이나 그 道는 하나이다. 고로 서로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 잃는 것이 없으니, 원래 그 가르침은 하나일 뿐이다.'라 하여 유교와 한의학의 가르침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결국 추구하는 내용은 하나로 다시 그 가르침이 하나임을 말하여 유교와 한의학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학과 유학의 학문적 기초에 있어서는, 유학은 인간에 대한 철학이고 의학 역시 인간에 대한 과학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는 하나의 학문계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학의 사회학은 한의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儒家의 사상체계가 인류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인간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인간과 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한의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요인이 인간의 질병 발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질병의 발생에 있어『內經』[15]과『東醫壽世保元』[16]에 七情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人事가 致病에 이르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診有三常 必問貴賤 封君敗傷 及欲侯王 故貴脫勢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 偏着者 爲病 而但知脾胃水穀 風寒暑濕觸犯者 爲病也."라 하여『內經』에서는 신분하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의사는 반드시 問診할 것을 말하고,『東醫壽世保元』에서는 飮食傷과 外感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문제'로 질병됨을 잘 파악함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사회적 요인의 질병발생을 강조하고 있다[4,17,18].

한편 儒家와 醫家를 묶어주는 서적으로 四書三經은 儒家의 대표적인 經典이며, 봉건사회가 지속되는 동안 학자들이 읽고 수양해야 하는 필수 서적들로, 역대 醫家들도 의사가 되기 전에 대부분 위 서적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儒學의 사상과 그 이론 및 행위는 醫家들의 머릿속에 필수적으로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다[18].

한의학에서의 치료적 큰 틀의 하나도 그 출발이 유교의 가르침과 같고 유학적 가르침에서 나왔다. 유교에서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조화와 질서의 추구에 있어 '中庸의 德'을 강조하고 있다. 中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이며,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이요, 庸이란 항상, 그리고 오래도록 바뀌지 않는 올바름이다. 이러한 中庸은 결국 윤리와 정치의 원리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체가 그 조화가 깨어졌을 때를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치료의 핵심이 된다. 즉, 中庸의 덕을 지키지 못하고 '過不及'이 생기면 신체적 질병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법은 周易의 '損上益下'의 방법으로 넘치는 것은 버리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5,6,13].

3. 儒醫로서 공부하는 자세와 그 내용

한의학에서는 학문을 하는 醫家의 자세에 대하여 유교적인 정신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그 올바른 자세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특히, 의학의 올바른 마음가짐 대하여 '朱震亨[11]'은 "儒者入教曰 正心·收心·養心 皆所以防此火之動於妄也. 醫者立教 恬澹虛無 精神內守 亦所以遏此火之動於妄也" '儒者의 가르침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을 기르라'고 한 것은 다 心火가 함부로 動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이다. 醫者 가르침에서 '욕심을 끊고 마음을 비우라, 정신을 고요히 가다듬어라' 한 것 역시 心火가 함부로 動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醫家가 가르침을 받는 자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유교에서는 仁과 더불어 禮 또한 매우 중시하였는데, 공자는 '克己復禮'를 강조하였으며 즉, 이기적 주체로서의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을 극복하여 예를 따른다는 내용이다. 그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도 특히, 자신보다 학식이 높은 이에게는 禮를 다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 덕목으로 여기는 것으로, 의학의 배움에도 그 정신이 깃들어 있다. 공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알려고 애쓰지 않거든 가르쳐 주지 말고, 표현하지 못해 더듬거리지 않거든 일러 주지 않으며.....'라 하여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만 가르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6].

한의학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孫思邈[19]'은 "一事長于己者 不遠千里 伏膺取決"라 하여 '다른 의사가 한 가지라도 자기보다 장점이 있으면 먼 거리를 마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배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醫道를 공부함에 있어 天文, 地理와 함께 '人事'를 공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에서 궁

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삶의 올바름'을 역시 의학의 공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즉『素問·著至教論』[15]에서 "予知醫之道乎.....此皆陰陽表裏上下雌雄相輸應也. 而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張久 以教衆庶 亦不疑殆." '醫道는 무엇인가.....이는 陰陽, 表裏, 上下, 雌雄이 관계하여 있는 것으로 醫論은 매우 광범위하다. 위로는 天文을 통하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고, 가운데로는 人事를 앎으로써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니, 그 의혹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醫家가 가져야 할 유교적 지식의 수준과 습득 방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醫學入門·習醫規格』[12]에 "每早 對先天圖靜坐 玩讀孝經 論語 小學 大有資力者 次及全部四書 古易白文 及書經 洪範 無逸 堯典(理會大意 不必强記) 蓋醫出於儒 非讀書明理終是庸俗昏昧 不能疏通變化."라 하여 그 뜻은 '매일 일찍이 정신을 집중하여 의사로서의 여러 儒書를 읽어야 하는데 그 큰 뜻을 이해하는데 그치고 무리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儒書를 읽는 까닭은 의학이라는 것은 儒學이 출발점이니 이러한 책들을 읽어 모든 事理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밝은 이치는 깨치기 위함이다.'이라 하고 또한 "玩讀儒書 稍知陰陽消長 以己驗人"라 하여 '儒書를 깊이 생각하여 읽어 陰陽의 이치를 알게 되며, 여기서 얻은 것을 통하여 타인(환자)에게 경험한다.'고 한다. 역시 "每五鼓 淸心靜坐 及早起 仍玩儒書一二 以雪心源(時時 不失平旦之氣 爲妙)"라 하여 '매일 새벽 마음을 맑게 하고 靜坐하여 깨면 이어 儒書 한두 가지를 대강 훑어보아 心源을 씻어 버려야 한다.(매일 동이 틀 때의 밝은 기운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진료시작 전에 儒書를 읽어야 하는데, 이는 유학의 가르침에 깃들어 있는 事理의 철학적 이치를 통하여,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진료 전 환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마음 수양의 한 방법론적인 것으로 儒書의 耽讀을 강조하였다.

유교적 학습관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로 논어 첫 구절인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의학을 포함한 학문의 이론의 습득에 있어서도 그 꾸준함을 강조한 대목이다[2]. 이러한 지속적 학문적 수양은 한의학에서도 그 부정적인 術策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의사를 비판하며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類經·脈色類』[20]에서는 "有專務人事者 典籍經書不知何物 道聽途說 拾人唾餘 然而終日營營綽風求售 不激自赴 儇媚取容 偏投好者之心 此阿諂之類也." '오로지 인간관계에만 힘을 쓰니, 書籍과 經書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道를 듣고 길거리에서 그 道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하찮은 것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나, 하루 종일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쁘면서 태연한 자세로 藥材들이 팔리기를 바라며, 저절로 알려지는 것에는 노력하지 않고 영리하게 아첨하여 용납하는 것을 취하거나 마음 좋은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으니 아첨하는 무리들이다.' 이는 잘못된 '人事'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儒書와 醫書 같은 것을 공부하여 스스로를 수양하고 醫術을 기르지 않고, 오로지 대인관계에만 힘쓰는 의사를 비판한 내용으로, 外科正宗에서도 아래와 같이 올바른 書籍을 참고하여 이론적 바탕 하에 치료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外科正宗·醫家五戒十要』[21]에서도 의사의 임상적 지식습득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又要依經寫出藥帖 必不可杜撰藥方 受人駁問."또한 '經書 따라서 약을 써야 하는데, 틀린 것이 많은 醫書를 참고해서 약을 쓰면 안 되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논란을 받기 쉽다.'

"有專務奇異者 腹無藏墨 眼不識丁 乃詭言神授 僞托秘傳 或假脈以言禍福 或弄巧以亂經常 最覺新奇 動人甚易 此 欺詐之流也."'오로지 奇異한 것에만 힘을 쓰는 자가 있어, 속으로 감춘 지식이 없어 눈으로 '丁'자도 모르면서 간사하게 속여 꾸미는 말로 神에게 받고 비밀스럽게 전수 받은 것이라 속이며, 혹 거짓으로 脈을 보고 환자의 禍福을 말하고, 혹 기교를 심하게 부리면서 일정한 치료규칙을 혼란 시켜 가장 새롭고 기이하게 여기게 하여 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 이는 欺詐하는 무리들이다.'고 하여, 각각 공부의 깊이가 없어 인간관계를 통해 환자에 접근하거나, 환자를 신비한 것으로 유혹하여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九要 凡室中所用各樣物具 俱要精備齊整 不得臨時缺少. 又古今前賢出籍 及近時明公新刊醫理詞說 必尋參看 以資學問 此誠謂醫家之本務也."'무릇 진료실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갖추고, 이와 함께 모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사용할 때 없거나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古今 先賢의 서적과 더불어 현시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간행한 醫學理論說도 반드시 찾아서 참고하여 학문을 쌓는 자료로 삼으니 이러한 것들이 진실로 醫家의 本務이다.'고 하여 의사의 진료실 환경에 대한 윤리와 함께, 新舊醫學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4. 仁愛사상에 기초한 의사의 儒家的 품성

유교에서는 인간이 가져야 할 인격완성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을 聖人이라 하고, 비록 성인에는 못 미치지만 도덕적 인격자를 君子라고 하였다. 君子는 學行과 德行이 고루 겸비된 사람을 말한다. 즉 학문적으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찾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는 원만한 인격을 이룬 사람을 말한다. 즉, 君子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줄 알고, 자기의 심성 계발과 인격도야에 부단히 노력하고, 인덕을 갖추고 道를 품어 행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을 말하는데, 의가가 가져야 할 품성으로는 聖人의 품성보다는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君子의 象이 필요할 것이다[6].

구체적으로 『醫燈續焰』[22]에서는 君子의 입장에 선, 儒家의 품성을 가진 의사의 마음자세에 대하여 "醫家存心 當自重 不當自輕, 當自謙 不當自傲, 當計功 不當計利, 當怜貧 不當諂富."라 하여 즉, 醫家가 두어야 할 마음가짐으로 自輕하지 말고'自重'할 것, 自傲하지 말고 '自謙'할 것, 計利하지 말고 '計功'할 것, 諂富하지 말고 '怜貧'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儒家의 입장에서 의사가 가져야할 구체적인 품성으로는 '仁愛'의 마음과 '聰明理達', '廉潔淳良'의 자세를 가질 것이며, 儒家와 같이 醫家도 '心火'의 망동을 경계하라고 한다. 즉, "夫醫者 非仁愛之士 不可託也 非聰明理達 不可任也 非廉潔淳良 不可信也[23]." '무릇 의사는 仁愛의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부탁하지 말고, 총명하고 理致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맡기지 말고, 청렴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儒醫는 君子가 지켜야 할 德目의 현실적 실현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즉,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실천적 관계형성에 '仁愛思想'을 도입하였다.

그러면 유교 敎學思想의 극치인 '仁'에 대하여, '仁'은 '사람 인(人)'과 '두 이(二)'가 나란히 있어 두 사람이 서로 짝을 이룬다는 뜻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德과 義를 가리키는 것이다. '仁'의 字意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說文解字』에 '仁者 親也',『맹자』'親親 仁也',『禮記』'仁以愛人',『韓非子』'仁者 謂其中心 所然愛人也',『墨子』'仁 愛也',『莊子』'愛人利物謂之仁'라 이해되는 것으로, 仁의 의미의 해석의 대략은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 함축된다. 특히, 공자는 仁은 '愛人'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맹자는 仁을 '不忍人之心'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하면서 '惻隱之心 仁之端也' 즉,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仁의 시작이라고 하였다[2,5].

결국 한의학도 동양 전통문화의 근본으로부터 그 이론적 출발을 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儒家윤리의 핵심사상인 '仁愛'의 사상이 있고, 전통적 의료윤리인 醫德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유교의 '仁愛'의 사상과 실천 윤리인 한의학의 윤리사상이 합해져서, 역대의 수많은 醫家들이 의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醫乃仁術', '以醫術 仁其民'이라는 명제 아래 한의학에서는 '仁術'이 그 의사윤리의 덕목으로 삼고 강조하고 실천하였다.

구체적으로『內經』[15]에서는 "天復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孫思邈[19]'은 "人命之重 有貴千金 一方濟之 德逾於此", 라 하여 의사는 '仁愛救人之心'을 가지고 '濟世救人之術'을 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18,24].

1) 仁愛思想에 바탕을 둔 의사의 孝사상

孝의 사상은 고대 醫德에 광범위하고 깊게 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知醫行孝'의 관점에서 儒家의 한 전통에 해당된다. 유교에서 추구하는 孝思想에 대해『孝經』에서는 '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天地之經而民是則之.'라 하여 '효란 하늘의 길이며, 땅의 義이며, 백성의 행위이다. 하늘과 땅의 기강이 있으면 백성은 그것을 본받는다'라 하여 효를 百行의 근본이라 하면서 추구해야 할 모든 유교적 德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로 두었다[5,25].

儒醫들은 仁의 실천방편의 중심에 '孝行'을 두고 있는데, 儒醫들이 유학의 다른 도덕적 행위보다도 효를 우선시 하는 것은, 유교 안에서 효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중이지만 그들의 의학적 지향이 바로 효에서 발현된다는 점이다. 즉, 유교의 효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학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명의 본원인 부모는 자기 신체의 근본이고 자기의 신체는 부모의 가지라하여 의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존하고 부모를 섬기는 도리로 인식하고 있다[9].

『小學』[26]에 나타난 그 구체적인 실천 예를 들면 "司馬溫公曰 父母有疾 子色不滿容 捨置餘事 專以迎醫合藥爲務也."'부모가 병이 들었으면 자식은 안색을 가득히 하지 않으며, 다른 일을 버려두고서 오로지 의원을 맞이하고 약을 조제하는 것을 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의료적 시술의 효의 실천으로 강조하였다.

'金元四大家'들도 그 사상적 배경은 유교이므로, 그 영향아래에서 '孝'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즉, 劉完素는 어렸을 적에 집이 가난하여 그 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죽은 일로 평생의 恨으로 살았으며, 張從正은 '以醫爲孝'의 孝를 중심으로 하는 儒學 개념을 이어 받아 그의 저서의 이름도 '儒門事親'으로 하였으며, 그 '序[10]'에서 보면 "其曰儒門事親者 以爲惟儒者能明其理 事親者能知醫也.라 하여 '오직 儒學者라야 그 이치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의학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또한 "各書之義 蓋以醫家奧旨 非儒不能明 藥品酒食 非孝不能備也"'名書의 의로움은 무릇 의가의 깊은 뜻으로 儒家가 아니면 밝힐 수 없고, 약품이나 술, 음식은 효자가 아니면 다 갖출 수 없다.'라 하여 효의 실천이 의학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朱丹溪는 그 어머니가 '脾疼'을 앓았으나 衆醫가 속수무책으로 잘 치료하지 못하자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 하였고, 李杲는 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 庸醫를 만나 잘못된 투약으로 사망하고도 그 병명을 알지 못하자 千金을 바치고 張元素를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의학을 배웠다고 한다[25].

'金元四大家' 이외에도 張仲景의 『傷寒論・序』[27]에 나타난 의학의 목표도 "上以療君親之疾 下以救貧賤之厄"라 하여 '위로는 임금과 부모의 질병을 치유하고 아래로는 빈천한 이들의 재앙을 구하는 것'이라 하고 『備急千金要方』[19]에서도 그 序에서 "君親有疾不能療者 非忠孝也"라 하여 忠孝의 실천적 윤리에 있어 의학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醫學心悟』[28]에서도 自序의 내용에서 각각 "古人有言 病臥於床 委之庸醫 此於不慈不孝 是以爲人父子者 不可以不知醫 雖然 醫豈易知乎哉!"'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들어 누워있을 때 돌팔이 의사에게 몸을 맡긴다면 이보다 더 자애롭지 못하거나 불효스러운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나 부모 된 자는 반드시 의학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의학의 원리란 어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리요!'

"況爲父者知此 可以言慈 爲子者知此 可以言孝. 以之保身而裕如 以之利人而各足. 存之心則爲仁術 見之事則爲慈祥. 尤吾道中所當景慕也."'무릇 부모 된 사람은 의학을 알아야 자애롭다 할 것이요, 자식 된 사람도 의학을 알아야 효성스럽다 하리라! 이를 통하여 지신의 몸을 보호한다면 삶에 여유가 있고, 이를 통하여 남을 이롭게 한다면 각자의 생활이 풍족해 질 것이다. 이를 마음에 보존한다면 仁術이 되고 일에서 실천한다면 자애로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에 있어서 당연히 우러러 사모하여야 할 바이다.'고 하여 모두 효를 행함에 있어 알아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의학적 이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2) 仁愛思想에 기초한 의학의 국가 및 사회 윤리 실천

공자는 治國平天下를 정치목적으로 삼았으며, 그 의미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키고 국가를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德治主義를 강조하였다. 이는 古代로부터의 성현들의 정치적 이상이다. 그 내용은 백성을 가르쳐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것과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어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의의와 功利的 의의는 서로 결합하여 정치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학자인 동시에 정치가인 맹자는 유교적 윤리사상의 근본원리를 사회에 적용시켜 그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王道論'에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王道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으로 하여금 예절을 알게 하는데 있고,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을 왕도의 극치로 보았다[5].

이러한 공맹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치윤리는 의사에게는 봉사를 위한 실천윤리로 해석되며, 실제 과거 醫家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의술을 통한 자신의 도덕 윤리를 실천하였다.

이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靈樞・師傳』[29], 『素問・疏五過論』[15], 『素問・天元紀大論』[15]에서 각각 "使百姓無病 上下和親 德澤下流", "聖人之術 爲萬民式", "上以治民 下以治身 使百姓昭著 上下和親 德澤下流 子孫無憂 傳於後世 無有終時"라 하여 '한 국가와 사회의 건강이 그 국가와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원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儒門事親』[10]에서도 그 序에서 "醫道之大尙矣 其上醫國 其下醫人"'의학의 도가 이미 오래되었다. 上醫는 나라를 다스리고 下醫는 사람을 치료한다.'라 하여 上醫와 下醫를 구분하여 단순한 환자치료를 넘어, 의술을 통한 국가사회 봉사를 좀 더 높은 의미의 의사윤리를 실천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儒家가 지켜야 할 五倫思想에서 중요한 부분인 '君臣有義'에 대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 이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해석가능한 윤리조항으로, 국가에 대해 옳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도리를 말한다. 즉,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官公과의 관계'에 있어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의미하며, 효와 더불어 유교의 핵심사상인 '忠恕'의 윤리사상을 강조한다[2]. 『外科正宗・醫家五戒十要』[21]에서는 의사의 '忠恕'의 윤리사상을 강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十要 凡奉官衙所請 必要速去 無得怠緩 要誠意恭敬 告明病源 開具方藥. 病愈之後 不得圖求匾禮. 亦不得言 民情 至生罪戾 閒不近公 自當守法."'받들고 있는 관청에서 진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빨리 갈 것이며 늦지 말 것이다.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병의 원인을 알리고 方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기록한다. 병이 치료된 후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백성의 사정과 형편을 말하여서 죄를 지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며, 官公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3) 仁愛思想에 입각한 의사의 청렴성

醫家의 품성에서 중 또한 중요한 것이 儒家가 가지는 정직성이다. 아래 『入門』[12]의 내용은 의사의 정직성에 바탕으로 한, 현대 의료 윤리의 '환자고지의 의무'에 따른 윤리성을 나타낸 내용이다.

"卽診後 對病家 言必以實 或虛或實 可治易治難治 說出幾分證候 以驗自己精神 如有察未及者 直令說明 不可牽强文飾."'진찰 후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되 虛實과 可治, 易治, 難治를 말하고, 어느 정도의 證候가 있다는 것을 알려 의사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만약 진찰이 미급한 경우는 바로 설명하되 꾸며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診脈 而不以實告者 欺也."'진찰 후 진실 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사기이다.'

의사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儒家의 仁愛思想을 바탕으로 '重義輕利'의 가치윤리의 영향아래, 과거의 많은 의사들이 醫學을 '濟世'와 '舍利取義'를 통한 君子의 이상적 인격을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였다[30].

그 대표적인 내용이 『備急千金要方・大醫精誠』[19]과 『醫學源流論・醫非人人可學論』[31]에

있다. 각각 "醫人不得恃己所長 專心經略財物", "今之學醫者 皆無聊之甚 習此業以爲衣食之計耳. 孰知醫之爲道 乃古聖人所以泄天地之密奪造化之權 以救人生死."라 하여,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恃己所長 專心經略財物'하는 의사 즉, 자신이 가진 의술의 장점을 이용해 재산을 모으는데 힘쓰는 자를 비판하였고, 『醫學源流論』에서는 '요즈음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무료함이 심하며, 의학을 익히는 것을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여긴다. 醫道가 옛 聖人이 天地의 秘密과 造化의 저울을 알아 인간을 삶과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즉, 의학을 배우고 의술을 행하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라 하여 모두 의료의 상업적 이용을 비판하였다[32].

또한 『醫學入門・習醫規格』[12]에서는 각각 "縱守淸素 藉此治生 亦不可過取重索 但當聽其所酬. 如病家亦貧 一毫 不取 尤見其仁且廉也. 蓋人不能報 天必報之."'비록 淸白을 지키며 의사노릇을 하여 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역시 과하게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되니 단, 그 보답을 듣기만 하여야 한다. 만약 환자가 가난한 사람이면 대가를 조금도 받아서는 안 되니, 이러하면 더욱 仁하며 그 청렴할 것이다. 대개는 사람이 갚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갚을 것이다. '"病愈後 而希望貪求 不脫市井 風味者 欺也(蓋不患醫之無利 特患醫之不明耳.)" 병이 나은 후에 그 대가를 과하게 요구하여 시장에서와 같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기이다. (대저 의사는 이익이 없음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의학이 밝지 않음을 걱정해야 한다.)'하여 즉, 부적절한 치료비의 요구는 시장의 장사치와 다름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료행위는 일반적 상업적 행위와는 다른 윤리성이 뒤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外科正宗・醫家五戒十要』[21]에서는 각각 "七要 貧窮之家及遊食僧道 衙門差役人等 凡來看病 不可要他藥錢 只當奉藥. 再遇貧難者 當量力微贈 方爲仁術 不然 有藥而無火食者 命亦難保也."'가난한 사람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佛道를 닦는 사람 그리고 관청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 등이 와서 진료를 요청하면 그들에게는 약값을 요구하지 말고 단지 약을 마땅히 주어야 한다. 다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마땅히 헤아려 조금 도와주는 것이 仁術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은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 명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라 하여 '仁'의 윤리를 실천함에 자신의 의료기술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그 청렴성을 강조하고, "八要 凡有所蓄 隧其大小便當置買産業 以爲根本 不可收買琉器 及不緊物件 浪費錢財. 又不可做銀會酒會 有妨生意 必當一例禁之 自絶謗怨."'무릇 환자를 봐서 재산을 모았으면 그 크고 작은 생산적인 일에 따르는 것을 당연히 근본으로 삼을 것이고 값진 보석이나 중요치 않은 물건을 사서 돈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돈놀이나 술집도 불가한데, 이러한 마음조차도 생기는 것을 막아 반드시 앞에서 말한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아야 하니, 스스로 비방과 원망 받는 것을 끊을 수 있다.'고 하여 의료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을 강조한다.

4)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의 仁愛思想

유교사상의 정수이며 극치인 仁의 윤리사상을 행함에 있어 공자는 '克己復禮'의 마음과 '忠恕'의 사회윤리를 실천하라고 하였다. 즉 '克己復禮'는 私慾을 버리고 人慾을 극복함으로써 자기를 완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자신의 私慾을 극복하는 자기수양의 과정을 통하여 인격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忠恕'는 忠이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고, 恕는 '자기의 마음과 같이'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忠恕란 자기 본래의 진실된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경지를 의미한다[6].

결국 의사는 仁의 윤리사상을 행함에 있어 '克己復禮', '忠恕'의 실천윤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극단적인 자기희생이 따르는 것이 현대의 의료상황에서와 같이 과거의 의료에서도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의 윤리덕목 실천이며, 특히 환자의 절박한 심정의 상태인 응급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은 극히 仁의 윤리사상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外科正宗・醫家五戒十要』[21]에서는 각각 "凡病家大小貧富等請事者, 便可往之, 勿得遲延" '어른 아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응급 진료를 청했으면 지체 없이 달려가라'고 하고, "四戒 凡爲醫者 不可行樂登山 攜酒遊玩, 又不可非時離去家中 凡有抱病至者 必當親視用意發樂."'의사는 등산을 즐겨서도 안 되며(빨리 진료실로 올 수 없다) 술을 가지고 놀러 다녀도 안 된다. 또한 시시로 의원을 비워서도 안 된다. 무릇 병을 알고 오는 환자도 반드시 직접 진찰하고 약을 써야 한다.'고 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의사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醫燈續焰・醫范』[22]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특히, 응급환자의 위급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仁愛思想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았다[32]. 즉, "醫乃仁慈之術 須披髮攖冠 而往救之可也..... 竊有醫者 乘人之急而詐取貨財 是則孜孜爲利 跖之徒也 豈仁術而然哉..... 凡來請召 急去無遲. 或止求藥, 宜卽發付. 勿問貴賤, 勿擇貧富. 專以救人爲心, 冥冥中自有佑之者. 乘人之急, 故意求財, 用心不仁, 冥冥中自有禍之者. 吾鄕有張彦明, 善醫. 僧道, 貧士, 軍兵及貧者求藥, 皆不受錢, 或反以錢米與之. 人來請召, 雖至貧下, 亦去."'醫라는 것은 '仁慈'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衣冠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달려가서 치료해주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사란 사람이 환자의 위급한 심정을 등에 업고 돈을 벌어 이익을 추구하면 부도덕한 사람의 무리이니 어찌 仁術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무릇 왕진을 요청하면 빨리 가야지 늦어서는 안 된다.'

5. 여성 환자에 대한 윤리

荀子의 '禮論'을 보면 '禮者法之大分 羣類之綱紀也. 人不可不學之 而學止於禮. 此道德之極也'라 하여 예는 법의 큰 부분으로 여러 종류의 기강이다. 사람은 그것을 배우지 않을 수 없으며, 배움은 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도덕의 극치다고 하였다. 이렇게 荀子는 예의 목적을 公利的으로 보고 인간의 악성을 교정하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5]. 즉, 유교에서는 '禮法'을 중요시하였는데,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나쁜 性이 속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禮를 지킴으로서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內經』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靈樞・師傳』[29]에서는 "黃帝曰: 順之奈何? 岐伯曰: 入國問俗, 入家問諱, 上堂問禮, 臨病人問所便..... 皆欲順其志也." '의사는 환자를 자상하게 돌 볼 것을 요구하는데,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환자가 살고 있는 나라나 집안의 풍속 예절을

잘 이해하여 환자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에서 즉,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 접근을 하라'는 내용으로 의사도 환자와의 한 사회 속의 소속된 구성물로서 서로 지켜야 할 禮를 위해서, 환자가 요구하는 '禮法'을 알고 지킬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부녀자에 대해서는 유교적 '男女相別'의 윤리관에 의거해 철저히 그 禮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많다.

먼저『醫學入門・習醫規格』[12]에서는 "如診婦女 須託其至親 先問證色與舌 及所飮食 然後 隨其所便 或證重而就床 隔帳 診之 或證輕而就門 隔帷 診之 亦必以薄紗 罩手(貧家不便 醫者 自袖薄紗) 寡婦 室女 愈加敬謹 此非小節."'만일 婦女를 진찰 할 때에는 반드시 그 至親한 사람한테 의뢰하여, 먼저 證狀과 顔色과 舌象 그리고 음식에 대하여 물은 후 상황에 따라, 혹 증상이 중하여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장막을 치고 진찰하며, 혹 증상이 가벼워 문까지 나올 수 있으면 장막을 사이에 두고 진찰하되 역시 반드시 얇은 비단으로 환자의 손을 감싸고 진찰 할 것이다(가난한 환자는 불편할 것이니 의사 스스로 얇은 비단 천을 소매 속에 준비하고 다닌다.) 과부와 처녀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할 것인데 이러한 것은 의사의 가벼운 예절이다.' 여기서 '小節'의 의미는 의사로서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素養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儒敎的 사고가 醫家에게는 일반화된 것을 의미한다.

『外科正宗・醫家五戒十要』[21]에서도 "二戒凡視婦女及孀尼僧人等 必候侍者在傍 然後入房視診. 倘傍無伴 不可自看. 假有不便之患 更宜眞誠窺觀 雖對內人不可談 此因閨闥故也."'무릇 과부나 비구승과 같은 여자환자를 진찰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한 후에 진료실로 들어오게 해서 진찰할 것이다. 만약 동반된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 진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편안하지 않은 질환을 보았을 경우에는 더욱이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데, 비록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하니 이는 여자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 하여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도덕예절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고 특히, '不便之患' 즉, 부인 관련 전문 질환에 대해서는 그 질환내용에 대한 비밀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왕진을 가서도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이 천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진료하여 오해를 받지 말 것을 주의하고 있다. 즉, "五戒 凡娼妓及 私夥家請看 亦當正己視如良家子女 不可他意見戲 以取不正 視畢便回."'기생이나 노비가 왕진을 원하면 당연히 자신을 바로잡아 良家의 자녀처럼 여겨야 하며, 좋지 않은 생각이나 희롱할 생각을 말아야 하고 진료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 것이다.'

6. 의사-의사 윤리

유교에서는 가까이 하는 사람과의 믿음과 신용을 강조한 내용으로 '親親而愛人'라 하여 五倫의 '朋友有信'과 함께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자는 말하기를 '益者 三友. 損者 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는 것은 유익하다. 허식적인 사람을 벗하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고, 반말 잘하는 사람을 벗하는 것은 해가 된다.'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과는 그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위하여 '禮의 덕목'이 필요하고, 禮를 통한 조화는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입장을 존중하는, 辭讓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다[2,4].

이상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信義와 禮 대한 내용은 같은 醫業을 하고 있는 의사와 의사가 지켜야할 윤리로 해석되며, 한의학에서는 『萬病回春』과 『類經』 등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道理'라는 의미에서 '同道之道'의 윤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의사들을 비판하고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3].

먼저 『萬病回春·雲林暇筆』[34]에서는 "吾道中有等無行之徒 專一誇己之長 形人之短. 每至病家 不問疾疴 惟毁前醫之過 以駭患者. 設使前醫用藥盡是 何復他求? 蓋爲一時 或有所偏 未能奏效 豈可概將前藥爲庸耶? 夫醫爲仁道 況授受相傳 原係一體同道. 雖有毫末之差, 彼此亦當護庇."'의사들 중에 실천해야 하는 醫道를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으니 오로지 자신의 장점만을 과장하고 다른 의사의 단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사들은 병을 진찰하지도 않고, 오직 앞서서 진료한 의사의 잘못을 비난하여 환자를 어지럽힌다. 설령 앞서의 의사가 약을 씀에 최선을 다하였으면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대개는 일시적으로 치우친 것이 있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어찌 앞서서 처방한 약을 잘못되었다고 하겠는가? 무릇 '醫'라는 것은 仁의 道이니 주고받고 서로 전하여 주는 것이 원래는 하나로 '同道'이다. 비록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보호하고 덮어 주여야 한다.'고 하여 의학에서 추구하는 기본 윤리는 '仁道'임을 말하고, '仁'의 字意인 인간 서로간의 친밀성 해석하여, 먼저 진찰한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설사 조그만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덮어두어야 한다고 한다.

『類經·脈色類』[20]에서도 동료 의사의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각각 동료의사에 대해 讒妬하거나, 功을 貪하여 하여 無知하게 치료에 임하여 다른 의사를 힘들게 하는 貪倖無知한 의사, 의사 상호간의 협진이나 진료의뢰에 무관심한 庸劣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有專務排擠者 陽若同心 陰爲浸潤 夫是曰是 非曰非 猶避隱惡之嫌 第以死生之際 有不得不辨者 固未失爲眞誠之君子 若以非爲是 以是爲非 顚倒陰陽 掀禍福 不知而然 庸庸不免 知而故言 次 其良心已喪 讒妬之小人也." '오로지 다른 의사를 배척하는 자가 있어, 앞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나 돌아서서는 모략을 하는데, 무릇 다른 의사가 옳은 것은 자신도 옳다고 말하고 반대로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미워하는 나쁜 의도를 숨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사가 걸려 있는 때에 기어이 판단을 함에 있어, 한결 같으면 참으로 정성스러운 君子가 되는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릇된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그릇되다 하여 陰陽이 바뀌고 禍福이 불태워지는데, 이러한 것을 모르면 평범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고도 그러하게 말하는 것은 그 양심이 이미 사라진 것이니 讒妬즉, 질투하여 죄를 헐뜯어 거짓으로 고해바치는 小人이다.'고 하여 즉, 겉으로는 동료의사의 진단상의 판단에 같은 의견을 말하여 나쁜 속마음을 숨기나,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는 동료의사와 반대의 의견을 내

어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동료의사를 힘들게 한다.

"有貪得無知 藐人性命者 如事已疑難 死生反掌 欺時也 雖在神良 未必其活 故 一藥不敢苟 一着不敢亂 而僅僅冀於挽回 忽遭若輩求速貪功 謬妄一投 中流失楫 以致必不可救 因而嫁謗自文 極口反噬 雖朱紫或被混淆 而蒼赤 何辜受害 此 貪倖無知之流也."'貪하기만 하고 無知하여 환자의 性命에 아득한 자가 있는데, 환자의 상태가 어려움에 봉착하여 生死가 바뀌기 쉬운 상황으로 이때엔 神醫라도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하나의 약이라도 감히 구차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치료도 감히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어, 근근이 만회되기만을 바라는데, 홀연히 같은 동년배들을 만나 빨리 功을 貪하여, 그릇되게 망령되게 한 번 투약 한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잃어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과 같으니 반드시 구할 수 없음에 이르는데, 이를 다른 의사에 떠넘기고 헐뜯으며 자기 자신은 꾸미며 극구 다른 의사를 배신하리니, 비록 착한 의사와 나쁜 의사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병을 앓는 불쌍한 사람이 어떤 허물을 받아 害를 받으리요! 이는 貪倖無知 즉, 요행을 貪하는 무지한 유형이다.'고 하여 즉, 자신의 공을 탐하여 위험한 환자에게 섣불리 치료하여 잘 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동료의사에게 넘겨 다른 의사를 힘들게 한다.

"有道不同 不相爲謀者 意見各持 異同不決 夫輕者 不妨少謬 重者 難以略差 故 凡非常之病 非非常之醫 不能察 用非常之治 又豈常人之所知. 故 獨聞者 不侔於衆 獨見者 不合於人 大都行高者 謗多 曲高者 和寡 所以一齊之傳 何當衆楚之咻. 直至於敗而後 羣然退散 付之一人則事已無及矣 此庸庸不揣之流也."'醫道가 같지 않아 서로 도모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있으니, 의견이 각각이라 결정됨이 같지 않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증상이 重한 환자는 치료함이 어려우니 고로 평범하지 않은 병은 평범하지 않은 의사가 아니면 진찰할 수 없으며, 평범하지 않은 치료를 사용함이 어찌 평범한 의사의 지식이요?

고로 혼자 듣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높이 행하는 자들은 비판을 많이 받는다. 굽어보아 높은 자는 그 수가 적으니 예를 들면 '한 명의 齊나라 사람이 제나라 말을 가르쳐 봐야 여러 楚나라 사람이 떠들고 지껄이면 교육효과가 없다'는 것과 같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진 이후에 여러 의사들이 물러나고 유능한 한 의사에게 부탁하나 일은 이미 그르친 뒤니 庸庸不揣 즉, 庸劣한 의사를 살피지 못한 경우이다.'고 하여 즉, 진료에 있어 적절한 협진을 이루지 못하는 의사들을 비판한 내용으로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外科正宗・醫家五戒十要』[21]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醫業을 하는 의사들이 가져야 할 신뢰와 화합에 바탕을 둔 의료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三要, 凡鄉井同道之士 不可生輕侮傲慢之心 切要謙和謹愼. 年尊者恭敬之 有學者師事之 驕傲者遜讓之 不及者薦拔之 如此自無謗怨 信和爲貴也."'무릇 고향에서 같이 醫業을 하는 사람들과는 업신여기거나 오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않되고 겸손하고 온화하게 言行을 삼가야 할 것이다. 나이 많은 자는 공경하고, 학식이 있는 자는 스승으로 삼되,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정중하게 피하고, 인

간됨이 부족한 사람은 추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원망을 듣지 않으니 의사는 신뢰와 화합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고 하여 같은 지역사회에서 醫業을 하는 의사들이 가져야 할 신뢰와 화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상 한의학에 강조한 의사 상호간의 윤리는 맹자가 주장한 仁義思想에서 '義'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내용들이 많다[6].

세부적으로는, 진료에 있어 의사끼리의 협진에 대한 내용,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한 신뢰 심지어는 '同道之道'와 '義'가 확대 해석되어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도 덮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환자 보호자 및 주변인물이 지켜야 할 윤리

청나라 말기 이전의 중국의 의료제도에서는 의사의 역할이,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환자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가정의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의사는 단독으로 여러 곳에 나누어져 개업하였는데, 한 장소에서 진료하기도 하고 환자의 요청에 의해 왕진을 하기도 하면서, 의료단위가 '醫家'와 '醫院'의 형식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儒生 중에서도 出家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여러 집의 병을 치료하고 밥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의료제도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며, 여기에 따라 환자의 가족은 처방에 따라 약을 제조하거나 환자를 간호하는 등의 과정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있어, 의사는 중심이 되어 환자의 가족을 접촉하며 진찰한 내용과 향후의 치료의 방안을 전체적으로 환자의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30].

현대 의학적으로 왕진의 한 형태인 이러한 의료실태에서는 환자 보호자 및 주변 인물을 '傍人'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의사에 대한 이들의 윤리가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실제 韓醫書에서는 대부분 의사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윤리의식이 비판된 내용들이 많다.

먼저 『醫學心悟・醫中百誤歌』[28]에서는 "傍人誤 代驚惶 不知理路亂忙忙 用藥之時偏作主 平時可是學岐黃.....旁人誤 引邪路 妄把師巫當仙佛 有病之家易着魔 到底昏迷永不悟." '환자를 대신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치료의 정확한 길도 모르면서 어지럽게 바쁘기만 하고, 처방을 내고 약을 쓰려고 할 때도 꼭 주장을 하려고 하니 이런 사람이 평소 의학을 배워 보았겠는가?.....환자의 주변 사람들이 巫醫를 신선이나 부처와 같은 존재로 현혹하여 환자로 하여금 귀신에 쉽게 씌이게 하여 환자를 혼란하게 하고 깨치지 못하게 한다.'라 하여 각각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환자 보호자, 巫醫에게 진료를 맡기는 환자 보호자를 비판하였다[32].

『類經・脈色類』[20]에서는 '傍人之情' 즉, 환자의 보호자나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의사가 가진 높은 의학적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각각 짧은 의학지식으로 의사가 눈에 보이는 곳만 치료해주기를 바라는 자, 자신만의 기준이나 대가를 바라고 의사를 추천하는 자, 제멋대로 의사를 평가를 내리는 자 등이 비판받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所謂傍人之情者 如浮言 爲利害所關 而人多不知檢 故 或爲自負之狂言 則醫中有神理 豈其能測 ?"'주변인물의 정서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진실 되지 않은 뜬소문과 같은 말을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어, 혹 자부하는 狂言을 하여도 의사의 심중에 있는 神과 같은 이치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或執見在之見 則頭疼者 云救頭 脚疼者云救脚 而本標綱目 反爲迂遠庸談"'혹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니 두통은 머리를 치료하고자 하고 脚痛은 다리를 치료하고자 하니,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이 도리어 멀고 쓸데없는 말이 된다.'

"又若薦醫 爲死生之攸係 而人多不知愼 有或見輕淺之偶中而薦者 有意氣之私厚而爲之薦者 有信其便便之談而爲之薦者 有見其外飾之貌而爲之薦者 皆非知之眞者也."'또한 의사를 추천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일인데, 사람들은 그 신중함을 잊고 가볍게 우연히 병을 알아낸 사람을 추천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같은 사람을 추천하거나, 자신 있게 말하는 모양에 믿음이 가서 추천하거나, 외모를 보고 추천하니 이 모두 진실 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又或有貪得而薦者 陰利其酬, 關情而薦者 別圖翼望 甚有斗筲之輩者"'혹은 바라고 천거하는 자가 있으니 뒤로 보답을 탐하고, 情에 이끌려 추천하는 자는 별도로 보답을 바라는 것이니 심하게는 그 물질적 대가를 바라는 무리들이다.'

"妄自驕矜 好人趨奉 薰蕕不辨 擅肆品評 譽之則盜跖 可爲堯舜 毁之則鸞鳳 可爲鴟鴞 洗垢索瘢 無所不至 而懷眞抱德之士 必其不侔."'망령되이 스스로 교만해져 인품이 있는 자를 깎아 내리고 善惡을 구분하지 못하며 멋대로 방자하게 평가를 내려 매우 악한 사람도 堯舜이 되고, 헐뜯게 되면 덕이 높은 君子도 간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을 허물을 헐뜯는 것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진실로 덕을 품은 의사는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此皆傍人之情 不可不察也."'결국 의사는 이러한 윤리적이지 않은 환자 주변인물들이 많으니 이들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8. 비윤리적 의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유교의 도덕규범체계는 매우 심한 신분적 차별성을 내포한,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규정하는 분별의 덕목인 五倫의 '夫婦有別'에 대한 내용은 남녀의 차별을 강화시키는 전근대적 성차별 규범이라 비판된다[2,4].

과거 한국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상호윤리가 가부장적 宗法사회로 발전하면서 유교적 남아선호사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小學』[26]에서는 婦有七去에 '無子去'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마땅히 버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남녀 성차별의 극단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의 성차별적인 잘못된 유교적 윤리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한국의 전통적 醫書인 『醫方類聚』와 『鄕藥集成方』에 생명윤리에 문제가 되는 '轉女爲男法'라고 하는 성별조작의 내용이 실려 있다[35].

먼저 『醫方類聚』[36]에 '轉女爲男法'라 하여

"陽旋陰化 所以有娠 遇三陰所會 多生女子 但懷妊三月 名曰始胎 血脈不流 象形而變 是時男女未定 故令於未滿三陰間 服藥方術 轉令生男也. 其法以斧置 妊婦床下 系刃向下 勿令人知 恐不信者 令待鷄抱卵時 依此置窠下

一窠盡出雄鷄 此雖未試 亦不可不知. 凡受胎三月 逐物變化 故古人入胎教 能令生子良善長壽 忠孝仁義 聰明無疾. 蓋須十月之內 常見好境象 無近邪僻 眞良教也. 如有觸忤傷胎 法各有法 据徐之才逐月養胎傷胎等方 備則備矣 事煩少用 故不暇錄 識者當自閱 令出安胎方如後."

'陽은 베풀고 陰이 변화시켜 임신되게 하는데 三陰이 모이면 흔히 딸을 낳는다. 임신한지 3달이 되었을 때를 始胎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血脈이 잘 통하지 않고 태아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아들인가 딸인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달이 되기 전에 약을 먹고 方術을 쓰면 딸을 아들로 되게 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의 침대 밑에 도끼를 몰래 넣어두되 도끼날이 아래로 가게 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믿어지지 않으면 닭이 알을 품을 때 닭의 둥지 밑에 도끼를 달아 매두어 두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가나온 병아리가 모두 수컷이다. 비록 이와 같이 시험은 못해 본다고 하여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임신한지 3달이 되었을 때에는 胎兒가 보는 물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임신 중 胎教하는 방법을 만들어 낳은 어린이가 착하고 오래 살며 충실하고 부모를 잘 모시며 어질고 의리가 있으며 총명하고 병이 없게 되도록 하였다.

대개 10달 동안 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며 간사하고 괴벽한 것은 멀리하는 것이 진정 胎兒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일 잘못하여 胎兒가 傷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방법이 따로 있다. 徐之才가 매 달 胎兒를 保養하는 방법과 胎兒가 傷했을 때의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자세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내용이 번잡하고 쓸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쓰지 않는다.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참고해야 한다. 胎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에 쓴다[37].

『鄕藥集成方・五十七券・求嗣門』[38] 의 褚尙書澄 求男論에서도

"建平孝王 妃姬等 皆麗無子 擇良家 未開女入 御又無子 問曰 求男有道乎? 澄對曰 合男女必當其年 男雖十六而精通 必三十而娶女雖十四而天癸至 必二十而嫁 皆欲陰陽完實然後 交合則 交而孕 孕而育 育而爲子 堅壯强壽. 今未開之女 天癸始至 已近男色 陰氣早洩 未完而傷 未實而動 是以交而 不孕 孕而不育 育而子脆不壽. 此王之所以無子也. 然婦人 有所產皆女者 有所產皆男者, 大王誠能 訪求 多男婦人 媒至宮府 有男之道也. 王曰 善未再期 生六男. 夫老陽遇少陰 老陰遇少陽 亦有子之道也."'建平孝王의 왕비와 궁녀들이 모두 아름다웠으나 다 아이(아들)가 없었다. 良家집 딸을 골라 맞았는데도 또 아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낳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고 물으니 스님이 말하기를 '남녀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나이가 적당하여야 한다. 남자는 비록 16살이 되면 정액이 나오나 30살은 되어서 장가를 가야하며, 여자는 14살에 월경이 시작되지만 20살이 되어서 시집을 가야 한다. 즉 陰陽이 충실해진 다음에 부부생활을 하여야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으며, 그런 아이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처녀들은 월경이 시작되면 벌써 남자를 가까이하므로 陰氣가 일찍 배설되어 완전히 충실해지기전에 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을 하여도 임신 되지 못한다. 왕이 아이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딸만 많이 낳는 여자도 있고, 아들만 많이 않는 여자도 있으므로 大王도 아들을 많이

낳는 여자를 맞아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왕이 그렇게 하여 2년이 되기 전에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다. 나이 먹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거나 나이 먹은 여자가 젊은 남자와 결혼하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도이다.'

『醫方類聚』에서는 胎教의 일부분으로서 '轉女爲男法'을 소개하였으며, 『鄕藥集成方』에서는 불임에 대해 잘못된 早婚의 폐단의 하나로 보았고 특히, '求男論'에 대해서는 '多男婦人'을 구해 사내아이를 낳을 것을 권하고 있다.

Ⅲ. 결 론

儒教倫理와 관련된 한의학 문헌을 통한 의료윤리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교의 인간중심의 사상관과 인간에 대한 실용적 적용학문인 한의학의 만남으로, 의사의 윤리적 바탕정신이 출발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儒醫가 있다.

2. 의사는 儒家가 가지는 바른 품성을 통한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실천하기 위해, 儒書를 읽고 습득하였다.

3. 의사는 환자에게 유교 敎學思想의 극치인 仁愛사상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천적으로는 부모와 국가사회에 봉사 하였고, 청렴성의 실천과 자기희생을 통해 仁愛사상을 승화시켰다.

4. 여성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는, 유교적 '男女相別'의 윤리관에 의거해 철저히 그 禮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5. 의사-의사 윤리에 있어서는, 유교적 信義와 禮를 바탕으로 한 동업자 정신을 중요시 하였다.

6. 儒醫는 환자보호자 및 환자 주변인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傍人'으로부터의 진료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였다.

7. 유교의 '男兒選好思想'은 의학에서 '轉女爲男法'이라는 성별조작의 의술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참고문헌

1. 김중백. 의료보험 제도와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2. 崔根德. 儒學講義. 서울:성균관 출판부. 1995:9, 11-2, 15-6, 18-20, 25, 31, 37, 111.
3. 琴章泰. 韓國 儒教文化의 特徵. 韓國學論集. 1995;27:139.
4. 琴章泰. 儒教思想의 문제들. 서울:麗江出版社. 1991:12, 32-3, 84-102.

5. 미우라 도우사꾸 지음 강봉수, 김성룡, 박재주 옮김. 중국윤리 사상사. 서울:원미사 2007:37, 41-2, 44-6, 63-6, 83, 108, 118-9.
6. 조규현. 동양윤리사상의 이해. 서울:새문사. 2003:37, 42, 44-8, 64-5.
7. 李梴. 編註醫學入門 Ⅰ. 서울:南山堂. 1988:29.
8. 成昊俊. 儒醫 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16(1):7-8.
9. 성호준. 論語와 儒醫 의학의 상관성. 東洋哲學研究. 2003;34:189, 200, 202.
10.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1, 6.
11. 朱震亨. 格致餘論·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法人文化社. 2007:11, 41-2.
12. 李梴. 篇註醫學入門 Ⅵ. 서울:南山堂. 1988:531-4, 537, 540.
13. 千仁錫. 儒學思想과 韓醫學. 제3의학. 1997;2(2):1, 460-1.
14.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法人文化社. 2007:25-6.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1985:97, 164, 309, 313.
16. 李濟馬著 동의학연구소 譯. 東醫壽世保元. 서울:여강출판사. 2002:275.
17. 김근우. 四象人 病證과 心身醫學과의 관계.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2;13(2)11-19.
18. 李紅. 略論儒家思想對中醫的影響. 深圳中西醫結合雜誌. 2000;10(2):57, 60, 61.
1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2-3, 13-4.
20. 張介賓. 類經. 서울:大星文化社. 1998:105-6.
21. 陳實功. 外科正宗.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332-4.
22. 潘楫. 醫燈續焰.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346, 360.
23.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券伍百一 總論 物理論・論醫.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15.
24. 楊錚錚. 中醫倫理學思想探源. 湖南:中醫藥導報. 2005;11(2):5-6.
25. 黃萼華. 儒學對中醫倫理學的影響與滲透. 廣西;中國醫學倫理學. 2007;20(3):37-8.
26. 小學集註. 成百曉 譯註. 서울:傳統文化研究會. 2006:100, 139.
27. 張仲景. 傷寒論譯詮. 서울:高文社. 1987:2.
28. 程國彭. 醫學心悟. 安徽: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8:3, 5.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1985:164.
30. 胡妮娜. 中國古代醫患關系初探. 黑龍江城:黑龍江中醫藥大學. 2005:27, 37.
31.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類 53券. 醫學源流論・醫非人人可學論. 서울:大星文化社 1995:701.
32. 유종호.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33. 김근우. 한의학에서의 환자-의사 관계,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7;18(3)103-4.
33.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中醫中藥出版社. 1998:491-3.
34. 신동원. 한국 전통의학의 의학윤리와 생명윤리. 서울:종교문화비평. 2005:75.
35. 浙江省中醫研究所. 校正醫方類聚·婦人門. 서울:醫聖堂. 1993:359-60.
36. 북한・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 醫方類聚 17권. 서울:여강출판사. 1991:195.
37. 동의의학편집부. 鄕藥集成方. 서울:여강출판사. 1991:54,73.